

제 26 회 정기포럼

SOS(Save Our Sea)운동과 자원봉사 -중간점검 및 활성화 방안-

- ♠ 일시: 2001년 8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 장소: 한국통신 강릉전화국 회의실 5층
- ♠ 주최: 한국자원봉사포럼
- ♠ 주관: 한국바다살리기 자원봉사 대행진본부
- ♠ 후원: 강릉시자원봉사센터, 행정자치부,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종건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하였습니다.

□ 임원구성

·회장 : 조해녕(前 총무처, 내무부장관)

·총무 :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김길수(새마을중앙연수원교수)

김연수(다일복지재단 이사)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경춘(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중소기업은행 연수원 교수)

이강현(볼런티어 21 소장)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주성수(한양대학교 교수)

최성균(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최순식(성남시 부시장)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채홍호(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사기관)

□ 사무국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포럼일정

▶ 개회식(14: 00 ~ 14: 20)

사회: 이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국민의례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개회사 -----김홍규(강릉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환영사 -----조해녕(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前 총무처, 내무부장관)

·축사 -----심기섭(강릉시장)

▶ 주제발표(14: 20 ~ 16: 30)

좌장 : 최일섭(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SOS(Save Our Sea)운동과 자원봉사

-중간점검 및 활성화 방안-

·기조강연 : 이윤구(인제대 총장, SOS운동 본부장)

·발표자:

윤흥복 (SOS운동 본부 사무국장)

서성운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최상수 (부산중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고태언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권순남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 토의정리 및 폐회 (16: 30 ~ 17: 00)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 차 례 -

포럼 일정 3

기조강연 6

“SOS(Save Our Sea)운동과 자원봉사”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주제발표 1 10

“범국민 바다살리기 SOS 자원봉사대행진 운동의 활성화 방안”
윤홍복(SOS 운동본부 사무국장)

주제발표 2 15

“강릉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서성윤(강릉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주제발표 3 20

“부산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최상수(부산중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주제발표 4 21

“제주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고태언(제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주제발표 5 27

“포항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SOS(Save Our Sea)운동과 자원봉사

인제대학교 총장 이윤구

1. 머리말
2. SOS 운동의 시대적 의의
3. IYV 한국사업의 중간점검
4. 후반년의 추진활성화
5. 맺은말

1. 머리말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YV)도 7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살리기(SOS)운동이 자원봉사의 물결운동과 접목이 되어 괄목할만한 일들이 이루어져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SOS운동의 시대적인 의미를 일괄해 보고 IYV사업(한국)의 중간점검 Check-list를 훑어 본 다음 후반기(8-12월)의 과제들을 생각해 보는 일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 SOS운동의 시대적 의의

“범국민 바다 살리기 운동”은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최근에 시작에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게라도 이 운동이 국민의 의식개혁과 친환 경적 문화진흥을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바다를 무진장의 보고(寶庫)로 또한 땅에서 흘러 보내는 공해물질의 무한대의 처리장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식이 폭발적으로 인간의 머리를 흔들면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구(地球)라는 별은 땅보다 바다가 압도적으로 넓고 크고 깊은 주체여서 해구(海球)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바다는 지구전체 생물종 중 육지보다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대기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열(熱)보다 1,000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구생태계의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땅의 생물들에게 비를 주

고 풍요로운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인류는 과학기술에 의한 해양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제일 귀한 물고기 10개종 가운데 7개종이 남획에 의하여 위험한 멸종의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해안의 오염과 공해가 놀라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 이변이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OS는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들이 재난을 당할 때 긴급구호를 호소하는 무선전신의 코드였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인간을 향해 SOS를 숨 가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가 건강을 잃고 죽어 가면 사람과 땅위의 모든 생물만 살아 남을 수고 없다는 새 연구가 설득력을 가지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우선 과제 가운데 바다 살리기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수도권 인구의 젖줄이라면 황해와 동해, 그리고 태평양과 오대양은 인류와 생태계 전체의 어머니라고 해야 옳을 듯 합니다.

3. IYV 한국사업의 중간점검

IYV한국위원회는 올해 사업의 주제를 자원봉사 “물결운동”으로 정하고 SOS운동과 손을 잡고 함께 바다살리기기의 물결을 남해에서 제주로, 부산에서 포항으로 세찬 밀물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속초와 거진으로 이 물결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수에서 목포로, 군산에서 인천을 거쳐 웅진까지 이 가을에는 전국해안에 SOS-IYV의 기적소리와 고동이 높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위해 자원봉사 단체들, 특히 자원봉사센터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범국민운동이 우후죽순처럼 반도해안도시를 기인 잠에서 깨워 일으킬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KBS-TV의 자원봉사 특집방송이 예상외로 성공리에 계속이 되어 국민의 봉사의식의 개혁과 함께 새 자원봉사지망자들(7만 육박)을 ARS로 받아 자원봉사 센터들이 봉사의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방송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4~5백만의 새 자원봉사자들이 새 결심을 했다고 추산합니다.

월드컵과 2002아시안 게임을 위한 자원봉사자 신청자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¹⁾. 아시안 게임을 합하면 실제로는 12~13만 명을 게임 기간중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과학적 통계자료는 없지만 지나간 7개월 동안에 우리국민 총인구의 약20%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고 믿고 연말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기울이면 30%는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만해도 제 기도의 90%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 2001. 8. 4. 일간신문 월드컵 자원봉사 신청자의 수가 65,600명이라고 발표됨

4. 후반 년의 추진 활성화

이제부터 가속도를 붙이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통속적인 이웃봉사 사업들 말고 조금은 새롭고 질적으로 한 자원 높은 일들을 한 두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원봉사의 영역을 혁명적으로 넓혀서 전국민이 봉사활동을 안하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TV프로그램의 ARS모금이 사실상 자원봉사(현금나누기)의 개념과 분야를 혁신했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가 한 좋은 예가 됩니다. 현금과 현물의 봉사가 잘 시동이 걸렸습니다. 액셀을 밟아서 백만, 수백만이 이 아름답고 위한 봉사차량에 올라타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공동체의 완벽한 자원봉사조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자원봉사가 차 상위계층인 수급권자, 사회복지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선진국이 되려면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삶의 분야에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문화, 교육, 경제, 정치 등 봉사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기본단위, 읍·면·동) 수준에서 봉사의 수요와 공급이 조직적으로 지속성이 있게 추진되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 북녘 땅을 보고 그곳 우리 한겨레가 오늘 겪고 있는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외교의 전망을 밝지 않습니다만 인도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방글라데시”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2천여만 우리형제들의 굶주림과 혈벗음과 질병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겨레의 화해와 통일조국 운동에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역사적인 IYV의 후반 년에는 국민개개인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자를 최고의 30%(1달에 한시간이라도 남을 위한 섬김을 시작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정책적이며 이득의 사회반환으로 자원봉사와 현금, 현물 제공에서 전문인·비전문인의 유급봉사제도가 모든 기업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 나라의 등록된 영리법인들 가운데 50%는 액수의 다소를 막는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자도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최근 사랑의 집짓기운동이 우리 나라에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국제규모의 자원봉사와 우리 나 기업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통계는 안 잡혀있지만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중국과 아세아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함께 이 분야도 크게 확산되어 나가야 합니다.

5. 맺는 말

우리는 한국자원봉사포럼의 제26차 발표와 회원들 사이의 정보교환, 지식과 지혜의 향상을 위해 이 아름다운 바다의 낙원, 그리고 태백 대간을 우러러보고 밝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범 국민 바다 살리기(SOS)운동과 한국자원봉사센

터협회가 전반기 IYV에 힘을 모아서 땀을 함께 흘린 일의 바른 평가는 후일 역사가에게 맡겨야 할 일이지만 한가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강릉을 떠났으면 합니다.

남해에서 정월 초하루 아침에 막을 올린 이 운동, 그리고 제주, 부산, 포항 등지에서 위대한 밑물같이 아름다운 성화같이 먼저 나간 횡불은 아직 여수와 목포를 거쳐 군산에서 아산, 인천으로 세차게 이어져야 합니다.

명년에는 해주, 남포, 정주를 거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장전, 원산을 거쳐 청진으로 함흥으로 두만강까지 뻗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북녘의 땅과 강, 산과 해변은 남녘같이 썩어 가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위험수위는 그 쪽도 이에 넘기고 있습니다.

SOS운동은 궁극적으로 생명경외, 생태계 보존,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이 지구(혹은 해구) 환경의 총생산의 63%를 차지하는 우리의 자원 보고이고 생명 줄입니다. 땅에서 겨우 37%밖에는 아니 나옵니다. 해안에서 38%,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25%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일하게 하고 생태계의 숨을 쉬게 합니다.

바다가 우리를 부릅니다. 목놓아 울면서(집중폭우로나 심한 가뭄으로나)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정부와 기업들과 함께 바다의 긴급구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미친 사람들같이 몰려들어 해변을 더럽히는 관광, 해수욕 인파가 “뒤로 돌아서!”를 해야 합니다. 청정해역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다를 즐길 줄 아는 백성이 되어 합니다.

산과 들, 도시와 농촌, 썩은 하천과 오대강에서 흘러내리는 쓰레기는 우리의 오염된 정신을 찍은 사진입니다. 바다까지 썩게 하고 해양생태계가 죽는 날은 지구가 함께, 인간도 같이 죽습니다. 이보다 더 큰 SOS가 있을까요? 황해(서해)와 동해는 환경지도에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해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오욕, 부끄럼, 안타까움을 아직은 맑고 씻을만한 바닷물로 닦아 내십시오.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의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국민 총동원으로 자원봉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범국민 바다살리기 SOS자원봉사대행진 운동의 활성화 방안

SOS운동본부 사무국장 윤홍복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개최국으로서의 준비과정에서 있는 시점에서 면모를 갖추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와 영해를 잘 가꾸고 지키자는 취지 아래에서 한국 SOS자원봉사대행진운동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여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시대적 사명과 굳은 의지를 모아 2000년 12월 서울명동에서 뜻깊은 선포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SOS운동은 죽어가는 바다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주 긴박한 구조신호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 산업경제의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 환경은마구 훼손되고 파 헤쳤으며, 특히 바다는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독을막아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각종 쓰레기나 폐수등 여러 가지 오염원에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다 없는 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가 없습니다.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로 나갈 수 가 없습니다.

바다를 모르고는 국제사회에 발을 디딜 수 가 없습니다.

바다를 버리고는 우리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바다는 우리의 영토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신 해양화 시대를 맞는 21세기 자유경쟁의 시대에 바다를 잘 가꾸고 보전하는

일은 우리가 살길이며 나아가서 전인류의 희망인 것 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뜻을 같이하는 협력단체 및 지금까지 산파역활을 해오신 위원님과 도움을 주고계신 각계각층의 기관 및 단체장님들을 일부 소개 하겠습니다.

집행부 운영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구 **인제대학교총장/한국SOS자원봉사대행진본부장**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고문

서성윤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조해녕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전정무장관

이강연 IYV한국위원회집행위원장

이창호 중앙일보사시민사회연구소부소장

강경석 대학사회봉사협의회국장

윤홍복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경기)본부장/
한국SOS자원봉사대행진본부사무국장

<참여기관 및 단체장>

노무현 민주당최고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

이경우 해양경찰청차장

장성식 해양수산부사무관

김두호 해양경찰청사무관

이삼선 부산해양경찰서장

백낙환 백병원이사장

김두관 경남남해군수

제주시장

이유근 제주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회장

부산수영구청장

포항시장

최상수 부산중구자원봉사센터소장/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부산)본부고문

권순남 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고태연 제주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홍석빈 제주시의회의장/(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제주)본부장

김달환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총재

배시남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중앙본부장

지창기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부산)본부장

홍성호 중앙일보사시민사회연구소차장

충남로타리클럽총재/은양한얼고등학교장

<그외 다수인>

<참여언론기관>

KBS(중앙) 희망을함께나눔을함께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마산MBC

KBS-R(중앙) 배한성오유경의가로수를누비며

경남일보

KBS(제주)

한라일보

제민일보

부산MBC

KBS(부산)

부산일보

포항MBC

KBS(포항)

경남일보

(그외 다수)

지금까지의 행사 실적을 간략히나마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 2000.12월중 (10여명) 여러차례 준비모임 개최(중앙일보사)
- 각계분야별 준비위원 -
- ▶ 2000.12.23 (300여명) 한국SOS자원봉사대행진운동선포식
개최(서울중구명동)
- 운영위원 및 시민단체 -
- ▶ 2000.12.31 (1,600여명) SOS자원봉사대발대식 및
~ 2001.1.1 해안가,수중쓰레기수거(경남남해)
- 인제대학교,공무원,시민단체 -
- ▶ 2001.3.24 (2,000여명) 청정바당제주행사 개최(제주용담공원)
- 학생,자원봉사자,공무원,시민단체 -
- ▶ 2001.4.28 (250여명) SeaCleanUp행사 개최(대부도해안가)
- 학생,자원봉사자,공무원(인천해양
경찰서,법무부보호관찰소),시민단체 -
- ▶ 2001.5.26 (20,000여명)푸른부산가꾸기행사 개최(부산광안리)
- 학생,자원봉사자,해양경찰서,시민단체 -
- ▶ 2001.5.26 (3,000여명) 포항SOS행사개최(포항해맞이공원)
- 자원봉사자,군인,공무원,시민단체 -
- ▶ 2001.6.16 (300여명) 푸른충남가꾸기행사 개최(당진도비도)
- 학생,시민단체(충남로터리클럽) -

향후SOS 운동의 활성화 방안

- 가. 현재 사무국 기구를 조직 결성하고 운영위원을 늘려서 더 많은 좀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
- 나.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여 사무국 기능을 수반 하여야 함.
- 다. 여러 단체가 고루 조합하여 참여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특성을 개발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화를 이루어가야 함.
- 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동시 다발적인 캠페인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홍보 및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 함.
- 마. 현재까지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등록을 하여야 함.
- 바. 일회성 행사 위주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지속성을 가지면서 캠페인 효과를 최대로 가져오는 사업계획을 구상 하여야 함.
- 사. 교육,출판이나 세미나개최등을 통한 활동을 늘려 나가야 함.
- 아.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여 우선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 만이라도 적극 참여토록 홍보 하여야 함.
- 자.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행정자치부등의 행정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구하여야 함.
- 차. 2002월드컵등 주요 국제행사등의 조직위와 공조할 수 있는 자체 계획안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 하여야 함.
- 카. 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회칙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단체의 사업계획을 홍보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함.
- 타. 최소한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금확보등 재원 마련이 시급함.
- 파. 방송을 포함한 신문등 언론사에 꾸준한 홍보 협조가 요구됨.
- 하. 정기적인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보완사항을 자주 점검해야 함.

강릉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서성윤

I. 강릉지역의 지역적, 환경운동을 특징

1) 모든 지역자원이 관광자원이다.

- 강릉지역의 바다, 산, 계곡, 문화유산 등은 그 외관이 수려하고 역사성을 띠고있어 지역의 모든 자연적, 문화적 자원이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예로 강릉지역의 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강릉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도직, 안인, 주문진, 강문, 안목, 등명, 정동진, 등 20여개에 달하며, 20여개의 산악 등산로, 부연동 계곡을 비롯한 10여의 계곡, 그리고 오죽헌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 등 모든 자원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우리나라 국민 모두 한 번쯤은 관광을 해본적이 있는 관광지다.

2) 환경문제 발생의 특징

- 위의 예에 나타나 있듯이 강릉지역은 산업화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산업체의 오,폐수 방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관광객들의 쓰레기무단투기 등 인간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1차적인 환경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환경오염이 국지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환경오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천, 바다, 산 모든지역에서 환경오염의 현상이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어업이 주 생업수단인 지역에서의 항포구의 선박 기름누출과, 생선적출물 투기 등 환경오염이 계속 심화되고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근래에 들어 논의 되고있거나 이미 사업이 결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콘도미니엄건설사업 등 관광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환경오염보다 더욱 파괴력이 있는 환경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담당기관이나 환경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강릉지역 환경운동의 방향

1)환경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강릉지역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1차적

인 환경오염이므로 지역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캠페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환경운동이라고 판단된다.

- 지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환경학교의 상설개소
-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의 지속적인 실시
 - ☞ 지역환경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를 활용하여 관광시즌에 대비한 캠페인의 프로그램화를 실시한다.
 - ☞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감시요원의 파견(자원봉사자 활용)

2)지역전체를 환경정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강릉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를 환경보호 대상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3)미래 지향적인 환경정책 요구

- 강릉지역은 남대천오염문제를 제외하면 현재는 환경에 대한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문제는 언제든지 발생 할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환경오염 가능성제거 차원의 환경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발생하는 환경파괴, 오염 등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지역은 관광지개발 지향의 정책보다는 보존을 지향하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운동 전개

-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SOS운동(Save Our Sea)은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화 된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환경정화운동을 보다 보편적이고 생활화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를 도화선으로 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환경관련 자원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함은, 물론 단체소속봉사자를 교육을 시켜 환경운동 도우미로 활용하며, 봉사단체간에 연계성을 유지하기위한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환경오염 산업체나 환경오염우려산업체에 대한 전시민적차원의 대책마련

II.강릉지역 SOS운동 사업계획(푸른강릉살리기 운동)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의 자원봉사참여를 촉진시키고, 강릉이 접하고 있는 동해바다와 남대천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화운동을 전시민의 봉사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사업명

“푸른강릉살리기 운동 및 봉사활동 박람회”

III.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01년 9월 15일(토)10:00 ~ 19:00
- 장 소 : 개회식 봉사활동박람회 : 경찰청 강릉연수원
환경정화활동 : 주문진, 경포해변, 강문, 안목, 남대천 상·중· 하류

IV. 사업주체

- 사업주체 : IYV한국위원회, 강릉시
- 사업주관 : IYV강릉지역위원회,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 후 원 : 강릉경찰서, 강릉시 교육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동해해양경찰서
- 협 찬 : 환경에 관심이 있는 강릉지역 기업체

V. 세부 사업내용

1. 개회식 및 성화환영식

- 일 시 : 2001년 9월 15일(토) 10:00 - 11:00
- 장 소 : 강릉 경포해수욕장

◆ 개회식

◆ 물결운동 성화환영식

- 자원봉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기수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성화를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대표에 전달하고 다시 강릉지역실무위원장에 전달한다
- 최종 강릉시장에 성화를 전달하고, 강릉시의회의장은 물결운동(SOS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 기 배치된 장소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2. 환경정화활동

- 간담회 : 사업의 계획 및 준비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2회)
☞ 1차 간담회(6월 중순) : 실무위원 단체 점검 및
사업계획설명

☞2차 간담회(8월 하순) : 행사별 역할분담, 사업
최종점검

- 지역 : 주문진 부두 주변, 경포 해변 주변, 강문해변주변, 안목해변
및 남대천 하구, 남대천 상·중·하류

- 활동내용 및 단체 : 간담회(2회)를 통하여 구역별 로 봉사단체를
배치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바다, 남대천수중 정화활동 : 해병전우회, 스킨스쿠버
동우회, 수상안전봉사대 등

☞쓰레기 줍기, 캠페인활동 : 첨부 봉사단체 소속 봉사자

☞불가사리 퇴치활동 : 각지역 어촌계

- 활동시간 : 일반봉사자 : 10:00 ~ 16:00

청소년봉사자 : 13:00 ~ 16:00

- 봉사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설정하고 표지판을 세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수거된 쓰레기와 오물은 담당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사전협조요청)

3. 봉사활동 박람회

- 일 시 : 2001년 9월 15일(토) 10:00 ~ 19:00

- 장 소 : 강릉 경포해수욕장

- 참가단체 : 남대천가꾸기, 사랑2000봉사단, 강릉대사회봉사센터 등
강릉지역 30여개 봉사단체

-전시회 내용 :

☞강릉지역 봉사단체들이 실시한 환경봉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을 담은 사진이나 자료를 전시

☞전국적으로 실시된 환경봉사활동 및 봉사관련행사 소개자료 및
사진 전시

☞기타 환경관련 사진 전시

- 사전에 참가봉사단체 접수

VI. 사업예산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전체금액에 대한)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2.950.000	8.350.000	4.600.000	
홍보비	2.500.000	2.500.000		-현수막 : 10개소×50.000원 =500.000원 -팜플릿 : 1.000매×1.000원 =1.000.000원 -포스터 : 1.000매×1.000원 =1.000.000원
감사패 제작비			500.000	-감사패 : 5개× 100.000원 =500,000원
장비임대료	2.550.000	2.550.000		-산소통: 6개소×200.000원 =1.200.000원 -수상보트(지): 6개소×200.000원 =1.200.000원 -무전기 및 기타 장비대여료 =150.000원
단순인건비	300,000		300.000	- 행사 진행 요원 10명 × 30,000원 =300,000원
식 대	1.200.000	1.200.000		-300여명×4.000원 =1.200.000원
간담회비	600,000	600,000		-간담회비 : 5.000원×30명×2회 =600.000원
참가자 T셔츠	3.000.000	1.500.000	1.500.000	-T셔츠 : 300매×10.000원 =3.000.000원
전시회 부스제작비	2.000.000		2.000.000	-전시회 부스 : 10동×150.000원 =1.500.000원 -전시대(50M) =500.000원
기타 예비비	300.000		300.000	-사무 행정비 포함=300.000

주제 발표 3

부산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부산중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최 상 수

(별지 첨부)

제주지역 환경자원봉사운동의 특징과 SOS운동 사업계획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고 태 언

♠ 한국자원봉사포럼에서 주관하는 정기포럼 토론자로 초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국자원봉사포럼 조해녕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최일섭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발표하신 SOS(Save Our Sea)운동과 자원봉사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가지 내용을 첨가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배경 및 의의

사면이 바다인 제주지역은 청정지역이지만 날이 갈수록 주변 해역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육상과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수와 오염물질들이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전 문제들은 제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면, 해안의 매립과 준설 간척사업 등은 주변해역의 환경조건들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적조현상이나 무산소화현상이 다발되고 있으며 불법어로나 담수까지 겹쳐 어장이 크게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매년 각종 해상유출사고는 집중적으로 양식어장을 오염시켜 바다와 양식장을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반대중에게 대기나 수질 오염처럼 급격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아마도

국민들에게는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을 자신의 생활과 그리 유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의 국민들에게 알려줄 기회가 별로 없다는게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때이다. 올해가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자원봉사 단체와 행정의 서로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전국민의 참여하는 범국민바다살리기운동을 전국에서 전개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지역에 깨끗한 제주바다 환경을 보전하는데 범시민운동을 자원봉사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사 업 목 표

-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
- 환경관련 전문기관을 협조를 얻어 환경보전 방안 제시
- 바다 살리기 운동의 전국민의 자원봉사운동으로 정착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단체 설립 추진
- 학생,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사 업 개 요

- 행사주제 : 자원봉사자가 가꾸는 청정바다·자손대대로
- 일 시 : 2001. 3. 24(토)
- 장 소 : 용담레포츠공원, 해안도로, 제주항포구, 제주시전역 해안포구
- 참여대상 : 학교,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제주시민 5,000여명 참여
- 주요행사 내용

가. 범국민바다살리기운동 제주지역 선포 행사

나. 해양환경감시단 발대식(53명 위촉장 수여)

다. 연안어장 및 항만내 수중정화 활동

- 제주항 어선부두 앞, 용담레포츠공원 포구
- 참 여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스포츠교실, 제주관광대학 레저스포츠과 학생, 제주시연합청년회 환경분과위원회, 로얄스쿠버 100명이 참여

- 내 용 : 연안어장 오염실태 조사 및 수중 폐타이어, 고철, 폐그물 등 5톤 수거

라. 연안어장 불가사리 퇴치운동

- 용담레포츠공원 앞 연안어장과 삼양동, 화북, 산지, 용담, 도두, 이호, 내도, 외도 등 연안어장에서 해녀들의 어촌계와 합동으로 불가사리를 포획했으며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각동별에 참여한 해녀들에게 국수 등 간식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의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 제주바다 환경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개최

용담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해안가에서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3,000여명이 참여하는 해양환경오염과 보전에 대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를 개최.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자원봉사운동에 대하여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

바. 해양환경사진전시회

용담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환경단체,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혼디모양녹색비전 제주시 21협의회 단체가 참여하여 해양환경 관련 사진 300여점을 선보였다.

4. 행사 운영

- 주 관 : 제주시, 제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 주 최 : 한국SOS자원봉사대행진본부, 중앙일보사, IYV한국위원회,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연합청년회
- 후 원 :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시교육청, 제주해양경찰서, KBS, MBC,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KCTV

5. 사업 평가

- 제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환경분과위원회 사업으로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번 사업은 중앙사업인만큼 단체협의회 전체 회원들을 참여시켰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지만 사업 자체는 분과위원회 사업으로는 성공적이다.
- 처음 추진을 하는 사업이어서 제주시만 한정되어 있어서 다음 2회 때는 제주도민이 전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에도 광역과 기초사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서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 우선 행사를 추진하려면 계획에 의거 예산이 따른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행정보조금과 광고수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행사 자체가 일회성으로 그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면 사전에 단체와 행정간의 유기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양관련단체들을 잘 관리해야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오염된바다,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바다오염의 주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해양오염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들을 환경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간의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해양환경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제 발표 5

한국자원봉사포럼
(바다살리기운동)

2001. 8. 10(금)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권순남

□ 사업목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오염원 유입으로 해양오염 심각
- 체계적인 홍보 및 폐기물 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인간과 자연 공생환경 만들기

□ 사업개요

- 일 시 : 2001. 5. 26(토) 10:00 ~ 16:00
- 장 소 : 포항시 해안
- 참여인원 : 5,200여명
- 참여단체 : 학교,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행정기관 등
- 주요행사
 - ♣ 범국민 바다살리기운동 포항지역 행사
 - ♣ 자원봉사 물결운동 성화봉송식
 - ♣ 해안 환경정화 활동
 - ♣ 연안어장 및 항만 수중정화 활동
 - ♣ 죽도어시장 주변 환경정화
 - ♣ 해양오염방지 캠페인
 - ♣ 형산강 정화활동
 - ♣ 환경사진 전시회
- 주최·주관 :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 후 원 : 한국SOS자원봉사대행진본부, IYV2001한국위원회, 한국자원봉사센터
협의회,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행정자치부
- 협 찬 : 삼성생명, (주)풍산
- 협조 기관 :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교육청, 포항수협, 포항해양경찰
서, 포항경찰서, 포항제철, 해병대
- 홍보 기관 : 포항MBC, KCB, 경북일보, 경북매일, 중앙일보

◦ 활동현황

일시	장소	참여단체	참여인원	활동내용
10:00 ~ 12:00	월포, 칠포, 죽천	대학 (한동대, 포항1대, 선린대)	1,000명	해수욕장 정화활동
	도구	포항정보여고 해병대	1,000명	해수욕장 정화활동
	동빈항	포항세화여고 바르게살기운동 포항해양경찰서 스킨스쿠버	300명	동빈항 수중정화(페타이어, 페어망) 청결캠페인
	형산강	포항경찰서 경주경찰서 환경단체 및 일반 시민	300명	환경정화활동
13:00 ~ 15:00	죽도어시장	새마을운동협의회 여성환경협의회	100명	질서·청결·해양 오염방지 캠페인
14:00 ~ 16:00	송도	동지중·고교 해병전우회	1,000명	유원지 및 해수욕 장 정화활동
14:30 ~ 16:00	여남, 북부	바다사랑다이빙 클럽 한국잠수협회포항 지부 청소년봉사단(30 개교), 지역자원 봉사단체	1,500명	연안어장 및 항만 내 수중정화활동 해안 및 해수욕장 정화활동

5. 효 과

- ♣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 ♣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지원체계 구축
- ♣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자율운동 정착
- ♣ 시민의식 향상으로 해양오염 사전예방
- ♣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바다오염실태 및 보전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

6. 문제점

- ♣ SOS본부의 지방자치 단체 협조 미흡
- ♣ 참여 기관 및 단체·기업의 미온적 협조
- ♣ 일반 시민의 환경의식 결여
- ♣ 기관·단체의 산발적 행사로 효율성 저하

□ SOS 유관기관 활동현황

기관명	사업내용	비 고
포항시 해양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정화(400ha) ◦ 침체어망인양사업(260ha) ◦ 오염해역준설 ◦ 적조방제사업 ◦ 폐어망, 어구수거 ◦ 침식방지, 호안정비 ◦ 방류사업(6종) ◦ 인공어초시설사업 	10개지역 연안해역 동빈내항 연안해역 1석 2개리 7개읍면 72개소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점용 및 관리 실태조사 ◦ 명예연안관리인(14어촌계,환경단체) ◦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처리 ◦ 침몰폐선처리 ◦ 항만청결운동(신·구항 해상) ◦ 1사1연안가꾸기(50개사) ◦ 일일해양명예교사제(내륙오지마을) ◦ 항만시설견학(바다의날, 하계방학) ◦ 바다체험 그림그리기(바다의날) 	항계내34개소 20명내외 2개항 1척(29톤) 1회/월 1회/월 2회/년 2회/년
포항 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 감시단속(출입검사,해상,항공감시) ◦ 해양오염방지 교육(8회) 및 홍보 ◦ 해상정화활동(384톤 수거) ◦ 해양오염 사진전시회 	188회 25회
포항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사리제거 ◦ 수산자원조성 : 치어방류 ◦ 해상정화활동 ◦ 폐유수거 ◦ 폐어망 폐자재수거 ◦ 바다살리기 캠페인 ◦ 해상오염방지 교육(어촌순회교육) 	월1회 2회/년
바다살리기 포항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사리제거 ◦ 해상정화활동 ◦ 폐어구, 폐어망 보관장운영 ◦ 수중침적물 수거 	월1회